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3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7)아끈다랑쉬·다랑쉬·돌오름  
빼어난 경관... 슬픈 역사의 무대

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입력 : 2003. 11.21. 00:00:00



오름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오름을 무대로 살아온 제주민의 한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탐사단이 찾은 다랑쉬 오름 일대는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 사건'의 아픈 현장으로 유명하다.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단은 10월 25일 아끈다랑쉬, 다랑쉬, 돌오름을 차례로 답사했다.

다랑쉬오름 일대는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다 인위적인 시설물이 차츰 난립하고 있어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날 탐사단은 다랑쉬오름에서 제주최대의 소사나무 군락지를 발견했다.

△아끈다랑쉬오름

소재지:구좌읍 세화리

해발:198m

비고:58m

둘레:1,454m

아끈다랑쉬는 이름 그대로 작은 또는 새끼 다랑쉬 격이다. '아끈'이라는 말은 제주어로 버금가는 것, 둘째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로는 소월랑봉(小月朗峰), 소월랑수(小月朗岫). 멀리서 보면 마치 둥근달이 살짝 얼굴을 내민 반월형(半月形)으로 다랑쉬오름의 분신이자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서쪽 사면의 분화구로 통하는 길을 따라 올라간 아끈다랑쉬는 은빛 억새물결이 오름 능선전체를 휘감아 장관을 이룬다. 깊이 약 10m, 둘레 약 6백m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원형경기장 모양의 분화구가 인상적인데다 참억새군락이 발달해 있다.

오름 기슭의 얇은 구릉에는 4·3당시 폐허가 된 다랑쉬마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듬성듬성 숲

을 이룬 대나무며 긴 올래 등등. 아끈다랑쉬와 서쪽에 매끈하게 우뚝 솟은 다랑쉬오름은 4·3당 시 희생된 유해 11구가 발견된 다랑쉬굴의 참상 등 역사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다랑쉬 오름

소재지:구좌읍 세화리

해발:382.4m

비고:227m

둘레:3,391m

다랑쉬오름은 제주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오름답게 늠름한 기상과 위용을 보여준다. 오름 답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찾는 오름중의 하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한자표기는 월랑봉(月朗峰)이나 월랑수(月朗岫), 대랑수악(大朗秀岳) 대랑봉(大朗峰) 등으로 불린다.

다랑쉬오름은 설문대할망의 전설이나 조선시대 효자 홍달한(洪達漢)의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제주민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왔다.

정상에는 깊이 1백15m에 이르는 분화구가 깊이 패였다. 그 깊이가 한라산 백록담과 같다는 것은 우연일까. 분화구 둘레는 1천5백미터에 이를 정도다.

다랑쉬오름에서는 세화·송당온천지구의 개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오름에서 보는 개발 현장은 마치 생채기가 난 것처럼 깊게 패여 볼썽사나움을 더한다. 여인의 치마폭처럼 맵시를 자랑하는 다랑쉬 오름 자체도 무분별한 등정객들의 발길 아래 깊은 도랑이 생기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탐사단은 이날 다랑쉬오름의 분화구를 답사하던 도중 뜻밖의 수확을 거뒀다. 한국특산식물인 소사나무 수백본이 균락을 이룬 채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강영제 위원은 “다랑쉬오름이 제주최대의 소사나무 균락지임이 확인됐다”며 “제주에 분포하는 소사나무는 내륙지방과 격리돼 유전변이나 교잡육성 등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등 자원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돌오름

소재지:구좌읍 송당·평대리

해발:284.2m

비고:129m

둘레:2,410m

탐사단은 다랑쉬마을 어귀에서 역사의 아픈 현장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팽나무를 뒤로 하고 비자림을 거쳐 돌오름을 찾았다.

풍만한 모양새가 돼지와 비슷하다 하여 돌오름, 한자로는 '저악'(猪岳)이라 한다. 또 돛·돛오름, 비자림을 품고 있어 비저오름이라고도 불린다.

비자림은 한창 나무덩굴이나 잡목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비자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백년 세월을 견디어온 비자나무 숲은 이로 인해 황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칫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돌오름은 꽃향유 물매화 등 야생꽃들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꽃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오름의 중턱부터는 마치 용단을 깔아놓은 듯 부드러운 잔디밭을 형성하고 있다. 신영대 위원은 "비자림을 보좌하는 어머니의 품처럼 다정한 곳"이라며 "다랑쉬오름과 둔지오름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전문가 리포트]다랑쉬오름은 최대 소사나무 군락지

오름의 왕국 제주에서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가 '다랑쉬오름'이다. 능름한 자태와 동선으로 오름을 오르는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다녀왔을 것이다.

이 오름의 분화구에 한국특산식물인 소사나무(*Carpinus coreana*)가 수백 본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북서풍과 태풍에 견딜 수 있고 불농기에서도 보호되는 분화구 안벽정상 7부 능선에서 바닥 위쪽까지 분포한다.

소사나무(*Carpinus coreana*)는 한국특산식물로 1920년대 일본인 식물학자 'Nakai'에 의해 전남 완도에서 최초 발견 보고된 식물이다. 내륙에서 분포는 주로 바닷가를 따라 황해도까지 드물게 분포하며 강원도 정선, 경북 안강지역에도 일부 서식하고, 제주도에는 산방산, 안덕계곡, 최오름 주변에 드물게 분포한다.

소사나무는 자작나무과의 낙엽활엽소교목으로 국내에는 서나무 등 5종이 분포한다. 암수 같은 그루로 4~5월경 개화하며 9~10월에 결실한다. 국내에 분포하는 서나무속 나무 중 소사나무만 양수의 성질을 가져 산복부나 정상에 자란다. 소사나무는 잎, 수피, 수관형 등이 아름다워 조경용, 분재소재로 각광받는 수종이며 우리나라 분재 소재로는 단풍나무 다음으로 각광받는 수종이다.

우리나라 자생 소사나무는 1977년 미국인 Miller에 의하여 미국으로 반출되어 미국국립수목원 및 민간 수목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신품종이나 교잡종은 육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될 만큼 자원 가치가 훌륭한 나무이며 국내에서도 잎에 황색의 무늬가 있는 '황금소사나무'가 임업연구원에서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히 제주에 분포하는 소사나무는 내륙지방과 격리되어 소사나무의 유전변이나 교잡육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강영제 탐사위원 (제주임업시험장 박사과정/식생분야)>

[전문가 리포트]다랑쉬 마을과 다랑쉬굴

폭낭(팽나무)이 서있다. 여기저기 대나무 군락이 보이고 마을길과 집터 흔적들도 확인된다. 소 먹이던 연못물은 말라버렸고, 사기그릇 조각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이다. 주변에 다랑쉬 오름이 있다고 하여 다랑쉬 마을로 불렸다.

이 마을에는 43 전만 하여도 10여 가구에 40여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 대부분 목축이나 화전 개간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1948년 말 토벌대가 초토화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해안 마을로 이주했다. 마을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1991년 12월 이 마을로부터 가까운 동굴 속에서 11구의 시신이 발굴되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이 동굴 속의 희생을 43연구소가 확인하였다. 희생자들은 1948년 겨울 초토화작전을 피해 산으로 숨어들었던 하도와 종달 마을 주민들로서, 가족 단위 피난민들이었다. 군·경토벌대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무장대로 간주, 굴속에 연기를 집어넣어 참혹하게 죽였다.

1992년 4월 언론을 통해 다랑쉬굴 유골 발굴 사실이 알려지자, 세인들은 43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인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다. 다들 놀라있던 그 짧은 시간에 재야단체나 유가족들보다 앞서 공간기관이 재빨리 움직였다. 마을의 유지가 나서 서둘러 화장할 것을 주장했고, 유족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화장장으로 향했다. 유골은 구좌 앞 바다에 흩뿌려졌고, 굴 입구는 큰돌로 봉쇄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55년 전 학살의 기억을 감추려고 굴 입구를 막아놓은 육중한 돌은 오히려 현장을 잘 보존해주고 있다. 굴 내부에 당시 유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 시신을 양지바른 곳으로 모시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량취굴 일대를 4·3유적지로 지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4·3평화공원에 복원 전시하여 기억과 기념의 공간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박찬식 탐사위원(4·3연구소 위원 문학박사/역사분야)>

[알림]탐사 동행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한라산 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취재팀으로 구성,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탐사를 위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2일(토)은 좌보미오름 백악이오름 등을 탐사합니다. 동행을 희망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획특집부(750-2280)로 연락바랍니다.

[알림]'대탐사' 동영상으로 보세요

한라일보는 디지털 영상 촬영업체인 디지털라인(주)과 공동으로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hallailbo.co.kr>)에 접속해 한라산 대탐사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탐사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풍만한 모양새의 돌오름 정상, 제주마들이 가을을 만끽하듯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